

## 헤라클레이토스의 斷片語

申南澈 譯

『헤라클레이토스』를 工夫하기 始作하여 三 個月 餘 그동안 이리저리 文獻을 涉獵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놀랜 것은 어찌나 그리 그에 對한 研究가 浩繁하고 深邃한지 놀랜 것이다. 나의 譯한이 斷片語는 그에 對한 體系的 研究에 對한 入門에 不過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의 生死의 年代에 對하여 定說이 업는 듯이 보인다. 『첼러』와 『네스틀레』는 535-475 B.C. 라고 하고 『쉬웨글러』는 510-450 B.C. 라고 한다. 如何間 그가 『팔메니데스』와 同時代로서 強直超俗한 態度로 「에 페수스」人의 生活을 輕蔑하고 더욱 希臘國民의 精神的 指導者이었던 사람들까지도 一文의 價値업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의 時代는 『다리우스』一世의 治世이였다. 「이오니아」人의 社會的 不安과 焦燥는 그에게 웬갓 人間社會의 不德, 不正, 死滅, 邪惡, 無知 等を 目睹하게 하였다. 그의 超人的 英雄主義는 그러나 또한 참 意味의 哲學的 思索을가지고 當時의 民主主義를 假借함이 업시 批判罵倒하였다. 그는 實로 類例드문 哲學者로서 『팔메니데스』와의 對立에 있어서 吾人의 學問的 欲求를 刺戟하여 마지 안는다. 實로 이 두 사람은 類型的으로 哲學的 思索의 兩 方面을 代表한다. 一은 「生成的」인 것이고 他는 「存在的」인 것이다. 나의 다음의 할 일은 『팔메니데스』를 翻譯하고 그리하여 兩者를 比較研究하여 무엇을 어더내는 데에 있다.

× ×

내가 이 斷片을 譯出하는 것은 또 다른 意味의 「안쏘이통그」를 가지고 있다. 그가 흔히 辯證法的 思惟의 先驅로서 『헤-겔』도 그에게 만흔 研究를 費하고 있다는 點에서 우리의 절른 世代에게 무엇이든지 時代的 關心에 對하여 한가지의 寄與하는 바 잇고자 함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말도 하지 안흔 「萬物은 흐른다」를 그냥 그의 말인 것 같이 외우는 것보다 더욱 그를 알지 안흐면 아니 될 것이다. 短時日에 한 것이나마 나의 이 譯出이 무엇인지

한 개의 興味를 이르킨다면 幸이다.

이 斷片을 譯出함에 波多野通敏의 日語譯도 參考해야 보았으나 어든 것보다 그 不備를 發見한 것이 아마 더 많을 것이다. 『첼러』의 『헤라클레이토스』에 對한 研究는 實로 놀랄만치 研究者에게 敎示함이 만다. 나의 이 譯出도 그에게 負한바 實로 多大하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時代의 社會的 情勢를 알기에는 『막스·분트』의 後出論文이 絶好한 文獻이겠다. 그는 어느 程度까지 眞正한 觀點 下에 『헤라클레이토스』를 解하였다.

× ×

『헤라클레이토스』의 斷片은 下記 一二六 個 以外에 誤傳되고 不正確한 것이 『셀스』에 조르면 또 十五 個가 있으나 나는 그것의 譯出은 時間이 엄서서 中止하였다. 더욱 그 十餘個 中에서 『네스틀레』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올흔 斷片으로 看注한 것도 있다. (一九三二·六·一九)

(希臘文字는 모다 活字가 엄서서 羅馬字로 고쳤다.)

一, 이 法則은 그것이 永遠히 存在하는 것이나 사람들은 그것에 對하여 甞기 前에 나 들은 뒤에 나 아무 理解를 얻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이 이 法則에 依하여 生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러나 決코 그 法則을 차저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가트다. 設使 내가 個個의 것을 그것의 本性에 查라 分析하고 또 그 個個의 것이 如何히 그 本性和 關係하고 있는가를 說明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그러한 말(logos)과 짓(ergōn)을 萬若 그들이 아러보려고 한다 해도 (그들은 決코 그 法則을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가트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잠을 잘 썬 한 바를 이저버리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은 깨여잇을 썬에 한 바도 아지 못하고 있다.

[註] 이곳에 「法則」이라고 翻譯한 것은 logos 이다. 이 logos 를 『셀스』는 「語」(Wort) 「世界法則」(Weltgesetz)이라고 翻譯하고 『네스틀레』는 「理性」(Vernunft)라고 하였다. 이 들은 어썬 것이든지 조타고 생각하나 나는 「法則」이라고 單只 翻譯하는 것이 낫지 않은 가 한다. 卽 『헤라클레이토스』에 잇서서의 「로고스」는 그것의 가장 根源的인 Sprechen이라든가 Wort 라고 하기에는 너무 洗鍊된 것이고 「理性」이라고 하기에는 좀 素朴한 것이 아닌가 하는 甞김을 준다. 勿論 그에게 잇서서의 「로고스」의 概念은 『막스·분트』의 意見과 가티 (M. Wundt; Die Philosophie des Heraklit von Ephesus im Zusammenhang mit der Kultur Ioniens. Aus "Archiv f. Geschichte d. Philosophie" 20 Bd. 1907) 「論理的 作用」으로 成立되어 있다. 그러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잇서서의 「理性」과 가티 그것의 固有한 意味를 가질 수 있는가는 疑問이다. 그럼으로 나는 「法則」이라고 譯하였다. 「法則」은 「論理的 作用」을 缺하여서는 決코 成立하지 못한다.

二, 그러므로 普遍的인 것에 조출 義務가 있다. 그러나 이 法則(로고스)이 모든 것에 共通이라고 할지라도 만흔 사람들은 마치 그들 自身の 認識能力을 가진 것 같이 生活한다.

[註] Phroceō 는 Einsicht (『셸스』와가티) 又は Denkkraft (『네스틀레』와 가티)의 意. 나는 Unterscheidende Erkennen 의 意를 取하여 「認識能力」이라고 譯하였다. 그러나 이 斷片二에 對한 解譯에 잇서서 對立한 두 가지 見解가 있다. 卽 『네스틀레』와 가티 形而上學的으로 解하려는 것과 『뢰부』와 가티 經驗的으로 解하려는 것이 對立하여야한다.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Bd. 25 에 잇는 E. Loew; Das Fr. 2 Heraklits 와 W. Nestle; War Heraklit “Empiriker”? 參照. 又 斷片七二, 一一三參照.

三, 太陽은 사람의 발만한 널비를 가졌다.

[註] 斷片四六, 一〇七에서 볼 수 잇는 것과 가티 人間의 感官知覺의 錯妄한 것을 보이는 『헤라클레이토스』流의 比喩이다. 『네스틀레』도 이 가티 解하였다. (Nestle; Virsokratiker S. 255 註

四, 幸福이라는 것이 肉體的 快感에 잇는 것이라고 하면 소가 豌豆를 먹고 잇는 것을 보고 幸福이라고 일커르지 안흐면 아니 될 것이다.

[註] 이 斷片은 그 假言的 體裁와 그 前提가 信憑할 만한 것인지 어쩐지 疑問이라고 『셸스』는 말한다. 斷片九, 一三, 三七參照.

五, 사람들이 피로써 몸을 더럽히고서도 殺人罪를 써서 버리려고 하는 것은 마치 진구멍이에 빠져가지고서도 진흙으로 몸을 써서 버리려고 하는 것같이 所用업는 일이다. 아마 사람들 中에서 그싸위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본 사람은 누구나 그를 미친놈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치 建物에 대고서 會話를 하려는 것 같이 이 神像에 對하여 祈禱를 드린다. 그들은 모든 神과 英雄을 그 本質에 對하여야는 아무것도 모른다.

[註] 斷片八六, 一〇八參照.

六, 太陽은 日新 又 日新이다.

[註] 斷片八, 一二, 四九a, 九一參照. 이 斷片들에서 『헤라클레이토스』의 思想은 가장 特徵的으로 表現되어야한다.

七, 萬物이 煙氣로 化한다고 하면 사람은 萬物을 코로써 區別하리라.

[註] 斷片九八參照.

八, 相剋인 것은 合致하며 여러 가지 音調에서 가장 아름다운 調和가 成立하고 모든 것은 爭鬪에 依하여 生한다.

[註] 『헤라클레이토스』思想에 있어서 가장 重要的 徵表 中の 하나인 爭鬪(cris)와 戰鬪(polemos)는 稀微하나마 區別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모다 前者는 Streit 後者는 Krieg 이라고 譯한다. 이 斷片의 爭鬪는 勿論 Streit 이다. 또 이곳에 調和라고 譯한 harmonie 는 現代의 Polyphonie (多音)와 가튼 Akkord(協和音)이 아니고 여러 가지 音이 合하여서 melos(諸調)가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셸스』는 註하였다. 斷片五一, 五三, 八〇, 參照.

九, 驢馬는 黃金보다도 쓰른짐(刻藁)를 조하하리라.

[註] 黃金이라고 한 것은 chrysos 인데 이것은 金屬으로서의 黃金이라고 하기보다 되리어 貨幣로서의 黃金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가 한다. 斷片九〇 及其 註參照.

一〇, 自然도 對立物을 追求한다. 그리하여 相等한 것에는 一致가 生하지 않는다. 마치 例言하면 男性은 女性과 結合하는 것이고 어는 것이나 同性과 結合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最初의 合致는 對立物의 一致에 依하여 生하는 것이고 同質의 것의 一致에서 生하는 것은 아니다. 藝術도 이것을 明白히 自然의 模倣에 依하여 成就한다. 繪畫는 畫面에 白과 黑, 黃과 赤의 色素를 混塗하고 그리하여 이에 依하여 原型과 같이 된다. 音樂은 高低長短의 音調가 여러 가지 音聲으로 混合되고 그리하여 이에 依하여 한 개의 統一된 調和가 生한다. 書字術은 母音과 子音을 合하여 完全한 技術을 짜낸다. 이와 똑같은 것을 킴킴한 『헤라클레이토스』도 말한다. 卽 全體와 全體 아닌 것, 合致와 不合致, 調和와 不調和는 結合하여 잇는 것이다. 그리하여 萬物에서 一이 生하고 一에서 萬物이 生한다.

[註] 킴킴한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한 것은 (skinteinos Herakleitos) 이니 그가 僻 難澁한 文句를 使用하고 또 그 說明의 형식이 그로 하여금 「킴킴한 사람」(the obscure, Zeller, Outlines of history of greek philosophy, English Translation p. 66.) 이라는 別名을 얻게 한 것이다. 斷片 八과 가튼 그의 獨自한 思想을 含蓄하고 있다.

一一, 그곳에 匍匐하고 잇는 모든 것은 神의 叱責으로 牧場으로 내몰린다.

[註] Plēgēi 는 文의 關聯 上 神에 對하여 말하여야만 말하여야질 수가 있다. 이것을 『셸스』는 Geissel 이라고 譯하였다. 나도 그것에 쪼쳤다. 斷片 一九, 一二一參照.

一二, 가튼 개울에 드러가는 사람에게는 늘 다른 물이 흘러온다. 精神도 또한 濕氣에서 蒸發하여야온 것이다.

[註] 前半에 對하여야는 斷片四九a, 九一參照.

이곳에 「精神」이라고譯한것은 Psychē 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잇스나 『셀스』는 Seele 라고 하였다. 「精神」이라고 譯하는 것이 妥當할는지 모르겟스나 爲先 그러케 하였다. 그리고 이 後半에 對하여야는 斷片三六, 一一八參照. 『헤라클레이토스』는 「火」代身에 쉼(Hauch, Psychē—息)을 세우기도 하였다. 精神은 그것의 純粹한 形態에 잇서서 神的 火 (Göttliches Feuer)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火 又は 싸뜻하고 말른(乾)蒸氣에서 成立한다. 그럼으로 이 불(火) 又は 蒸氣가 純粹할수록 精神은 完全한 것이다. (E. Zeller; Die Philosophie der Griechen 1 Bd. 1 Tl. S. 815, 882-3)

一三, 泥糞을 질겨한다.

[註] 斷片九參照.

一四, 『헤라클레이토스』는 뒤에 對하여 豫言하고 잇는 것이냐. 夜遊하는 者, 魔術師, 酒神 싹커스, 그 巫女, 神職을 가진 者 等に 對하여 豫言하고 있다. 이 者들에 對하여 그(『헤라클레이토스』)는 死刑으로써 威脅하고 또 그들에게 그는 火刑을 豫言한다. 왜 그러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그들과 가튼 神聖하지 안흔 方法으로 祭典에 슬러드러가는 일이 盛行되여 잇음으로.

[註] 그는 狂信的 宗教禮拜를 極力排斥하였다. (Vgl. Zeller; Outlines of greck philosophy p. 71.)

一五, 萬一 그들이 『쩍오니소스』에 對하여 行列을 지어 祝典을 열고 淫歌를 부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장 破廉恥한 行爲이다. 아무튼 冥府의 神은 그들이 씨들며 謝肉祭를 舉行하는 『쩍오니소스』와 똑 가튼 것이다!

[註] 그는 늘 平民의 生活을 輕蔑하였다. 斷片 一四와 이것과는 直接關連을 가진 것이다. 그는 尙까지 貴族主義的이다. 『쩍오니소스』는 地下國의 神으로서도 敬仰되었다. 그는 元체는 『체우스』의 아들로서 酒神이기도 하다.

一六, 어찌케 하면 사람은 消滅하지 안는 것의 앞에서 수머서 나며 잇을 수가 잇을가!

[註] 모든 것은 흐른다는 그의 思想으로부터 생각하면 그것은 될 수 업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이 斷片에 對하여 만흔 問題를 가지고 있다.

一七, 만흔 사람은 그들이 (每日) 부닥드리는 事物에 對하여 생각도 아니 하고 쫓는 그들이 배운 것을 理解도 못한다. 勿論 그들 自身에게도 그러케 생각키기는 하는 것이나.

[註] 이 斷片에 對하여는 『네스틀레』의 譯을 重譯하였다.

一八, 萬一 願望하지 안었다고 하면 그 願望하지 안흔 것은 發見되지 안흔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探索할 수도 업는 것이고 쫓 接近할 수도 업는 것인 까닭이다.

[註] 이 願望(hoffen)이라는 것은 神秘로운 意味를 가졌다고 『셀스』는 註 하였다.

一九, 民衆은 드를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른다.

[註] 斷片九, 四九, 一二一參照.

二〇,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러케 말한 것을 볼 것 가트면 그는 出生을 不幸한 것으로 본 것 가트다. 卽 「사람이 난 쎄는 그는 살랴고 쟈라서 주금을 바드랴고 아니 도리어 休息하려고 온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금을 當하랴고도 子息을 남겨놓는 것이다」

[註] 이 斷片과 M. Wundt 의 Die Philosophie des H. v. Eph. in Zusammenhang mit der Kultur Ioniens. 와를 對照하여보면 當時의 社會事情과 生死觀과를 엿볼 수가 잇다고 생각한다.

二一, 死는 우리가 깨엇을 쎄에 보는 모든 것이고 睡眠은 쎄에 보는 모든 것이다.

[註] 이것을 Clem. Strom. 은 “Wie das, was wir in Schlaf sehen, ein Traumbild, etwas nichtiges ist, so ist das, was wir im Wachen sehen, etwas Totes.” 라고 하였다. 쫓 『랏살레』는 이 斷片의 前半은 「우리가 쎄서보고 쫓 生이라고 하는 것은 實로 自己自身の 슝팀업는 消滅이라」고 解하였다. (Lassalle; Heraklit……. I I S. 320)

이 斷片에 對하여서는 Zeller; Philosophie der Griechen I : 2. S., 899-900 에 詳細한 解說이 잇다.

二二, 黃金 採掘者는 흙을 만히 파고서도 조곰도 얻지 못한다.

二三, 이것이(不正者?) 업섯을 것 가트면 『썩케』의 이름을 알지 못하얏을 것이다.

[註] 『딕케』Dikē 는 正義의 女神 으로서 『제우스』의 딸.

二四, 戰爭에서 主君 사람을 神과 사람들이 敬仰한다.

二五, 偉大한 主君은 偉大한 報復을 받는다.

二六, 사람은 주것슬 썰나 사릿슬 썰나 밤에 불을 켜다. 그는 眼光이 消失된 썰 잠을 자면서 死와 接觸하고 썰잇슬 썰 그는 조름을 준다.

[註] Zeller; Philosophie der Griechen I : 2 S. 887 參照. 그는 이 斷片을 『셀 라이엘마헬』과 가티 「사람은 밤불과 가티 불을 켜고 주글 썰는 썰진다. 그러나 사 러서는 잠을 자면 死와 接觸하고 잠을 썰서는 눈이 머르면 잠자는 것과 接觸한다」 고 하고 시프다고 하였다. 卽 이것은 잠잘 썰는 불이 썰은 썰지는 것인 故로 睡眠 이라는 것은 死와 生의 中間에 잇는 것이라고 하는 意味인가.

二七, 사람은 바라지도 안코 想像도 하지 안흔 死를 기다리고 잇다.

二八, 가장 信心기쁜 사람이 認知하며 固執하고 잇는 것은 오직 臆說에 지나 지 안는다. 그러나 勿論 虛言者와 그 宣誓 補助人을 正義의 女神은 逮捕할 줄을 알리라.

[註] dokeonta 는 dokeō—(Glauben, Meinen) 에서온 것으로 『셀스』는 Glaeubliches 라고 譯하고 日本譯(波多野通敏)은 臆說이라고 하였다. 나도 그것에 쪼쳤다.

二九, 最貴한 者가 다른 무엇보다도 渴望하는 것이 하나잇다. 卽 無常한 事物 가운데의 永遠한 名譽가 그것이다. 그러나 多數人은 家畜과 같이 滿腹하 야 누어잇다.

[註] 斷片四, 一〇四參照.

三〇, 모든 물건에 對한 同一한 것인 世界秩序는 何如한 神이든지 人間을 創造하지 안엿다. 그것은 언제까지든지 잇엿고 잇고 쪼 잇슬 適度히 불타고 쪼 適度히 썰지는 永遠히 生命잇는 불이다.

[註] 이 世界秩序라고 하는 것은 Kosmos 이다. 그것은 普通 Weltordnung 라고 獨譯된다. 그에게 잇서서 archē 로서의 火 Pūr 가 如何히 重要한가는 以下의 火에 關한 諸斷片에 依하여 解明될 것이다.

三一, 火의 諸 變化, 첫재로 海이고 그것의 半은 地이고 다른 半은 熱風이다. 이것은 火는 世界를 支配하는 法則(로고스) 或은 神에 依하여 그가(『헤라클레이토스』) 海라고 이름 지은 世界構成의 擘으로서 風을 通하여 水로 變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에 依하여 다시 地, 天 及 그 사이에 잇는 것이 成立한다. 그러면 어찌케해서 世界가 다시 源 存在로 復歸하고 그리하여 世界燃燒가 生하는가에 對하여 그는 明瞭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卽 『그것(火)은 海로서 融解하고 그것이 地가 되기 前에 쫓든 것과 가튼 同一한 法則(로고스)에 싸라서 제 限度를 가지고 있다』

[註] Zeller; Philosophie der Griechen I:2 S. 814 註 (2)參照. 世界의 創造의 本體로서의 火(Pür)는 電光(Prästēr)과 區別되는 것이라고 하는 『랏살레』의 見解는 『셀러』의 註 와 가티 妥當치 안타. 『헤라클레이토스』의 思想은 徹頭徹尾 經驗의 事實로부터 出發하여야잇는 것이다. 이 事實을 無視하면은 아마 『헤라클레이토스』를 完全히 理解하지 못할 것이다. 이 點에 當하여 『막스·분트』의 前揭論文은 實로 注目할 만한 것이다.

三二, 一者 卽 唯一한 智慧는 『체우스』의 이름으로써 부르기가 실타. 그러나 다시 그러케 불려저도 조타.

[註] (ouk ethelei (will nicht)이라고 한 것은 『헤라클레이토스』가 通俗的인 『체우스』와 一致하지 안음으로 한 말이다.(『셀스』의 註 )

三三, 倫理라고 하는 것은 唯一者의 意志에 쫓는 것을 意味한다.

[註] nomos를 나는 「倫理」라고 譯하여 「로고스」(法則)와 區別하였다. 이 「노모스」는 傳來慣習 等の 뜻에서 傳化하여 「法則」이라는 意도 가지고 잇스나 흔히 (honomos)라고 할 새는 Es ist Sitte. 라는 뜻을 가졌다고 한다. 「로고스」는 『막스·분트』의 말과 가티 『헤라클레이토스』에 잇서서는 「論理的 作用」을 가지고 잇는 것이나 이 「노모스」는 그러치 안타고 생각한다. 이것은 (hoi nomoi tous anthrōpous paideuosin (「노모스」는 人間을 敎育한다)이라는 文句에서도 볼 수 잇는 것 가티 「論理的」보다는 더 「道德的」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의 이 「倫理」라고 한 譯이 반듯 이不 當하지는 안을 것이다. 斷片 四四參照

三四, 그들은 그것을 드러도 理解를 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비둘기(귀머거리)와 가트다. 箴言도 그들에게 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그곳에 잇스면서 쏘한 그곳에 잇지안타』고.

[註] 斷片 一九參照.

三五, 愛知者가 되려면 만흔 事物에 通達하지 안흐면 안이된다.

[註] 그러나 이 愛知者(Philosophos)라는 것은 「이오니아」의 이기는 하나 아마 이知(Sophos)라는 것이 『헤라클레이토스』에 있어서의 述語的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헤라클레이토스』의 創作이 아닐가 하고 『펠스』는 註 하얏다. 斷片 四〇參照.

三六, 精神에 있어서의 死는 水가 되는 것이고 水에 있어서의 死는 地가 되는 것이다. 地에서 水가 生하고 水에서 精神이 生한다.

[註] 斷片 一二, Zeller; Philosophie der Griechen I:2, S. 846-850 參照.

三七, 豚蓄은 泥糞에 浴하고 家禽은 塵埃나 燒灰에 浴한다.

三八, (몇 사람의 말을 들르면) 『탈레스』는 最初의 天文學者이였다. (이것을 『헤라클레이토스』와 『제모크리토스』는 確信하얏다)

三九, 「푸리에네」에 「테우타메스」의 아들 「제아스」가 사럿는 데 그의 評判은 다른 사람보다 컷섯다.

[註] 『푸리에네』는 「카이엔」에 세운 이오니아인의 都市. 이 都市를 占領하려고 「아테네」는 「미레토스」와 戰爭하얏다. 『제아스』는 『소론』과 同時代의 七賢人의 一.

四〇, 博學이라는 것은 精神的 認識力(Noos)을 가지는 것을 가르키지 않는다. 勿論(이것은 ) 아마 『헤시오드』와 『퓨타고라스』도 가르켓고 쯔 『크세노파네스』와 『헤카타이오스』도 가리켓다.

[註] Polumathiē(博學多識)는 조흔 意味에서도 쯔 나쁜 意味에서도 使用된다. 이 斷片에 있는 「博學」은 倂단턱하게 만히 아는 體하는 그러한 것을 云謂하는 것이 아닌가생각한다. 『네스틀레』는 이 斷片은 斷片三五와 矛盾된다고하얏스나 반듯이 그러치 안은 것이다. (Nestle; Vorsokratiker, 1922 S. 255. Anm. 4). 『헤라클레이토스』는 『퓨타고라스』·『크세노파네스』·『호메로스』가튼 哲學者, 詩人을 一文의 價値업는 것이라고 侮蔑하얏다. 이것은 斷片 四二, 五六, 五七 등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럼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博學이라고 하는 것은 畢竟 『헤라클레이토스』의 눈으로 볼 쯔는 永遠한 眞理의 本領에서 쯔나잇는 雜多에 지나지 안는 것이다. 그들은 참 意味의 「愛知者」는 아니였다. 쯔라서 그러한 博識은 「로고스」的 判斷力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 斷片이 斷片 三五와 矛盾된다는 『네스틀레』의 見解는 受容하기 어렵다. 그들의 博識과 「愛知者」의 博識과는 本質的으로 달르다.

四一, 知慧는 理性을 認識하고 萬物을 支配할 쯔 아는 한 가지(to hen)에서 成立한다.

[註] 이 斷片과 斷片 四〇과를 보면은 『헤라클레이토스』가 如何히 「愛知者」의 「知」와 『퓨타고라스』·『호메로스』의 「知」와가 다른 가를 말하얏는지 알 것이다.

四二, 『호메로스』는 懸賞競技에서 쏘껴나고 쏘 회초리(若枝)로 마저야 싸다. 『알킬로코스』도 마찬가지로이다.

[註] 『알킬로코스』는 「파로스」(多島海 中에 잇는 섬)出生의 有名한 韻格詩人.

四三, 사람은 火災를 쓰는 것보다 먼저 邪惡을 쓰지 안으면 아니 된다.

四四, 國民은 城市를 死守하는 것 같이 그 習俗도 死守하지 안하면 아니 된다.

[註] 斷片 三三註 에서 말한 바와 가티 「노모스」는 風習, 道德, 法律 等を 意味한다. 『헤라클레이토』는 「에페수스」의 貴族이얏든 것을 생각하고 이 斷片을 보면 그의 社會的 政治的 見解를 窺知할 수가 있다.

四五, 汝는 精神의 限界를 發見하지 못할 것이다, 設使 汝가 如何한 길을 거를 지라도. 이같이 精神의 法則(로고스)은 기피 숨여잇는 것이다.

四六, 狂氣는 □□과 가튼 疾病이고 눈은 錯覺的이다.

[註] 斷片 一〇七參照.

四七, 우리는 最重要한 事物에 關하여 輕忽히 最後의 判斷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四八, 弓의 名은 똑같이 生命이나 그것의 하는 일은 死傷이다.

[註] 弓과 生命이 똑가티 hios 이나 「아쿠트」의 位置가 다르다. 卽 弓은 hios 이고 生命은 hios 이다. 그러나 『셀스』의 斷片集에는 그 두 가지는 다 가티 hios이다.

四九, 가장 貴善한 사람일 것 가트면 그 한사람만도 나에게 잇어서는 一萬人만한 價値가 있다.

[註] aristhos는 貴族的인 最善者, 最勇者 等の 意味를 가지고 있다. 斷片 五, 一九參照.

四九a, 우리는 가튼 개울(川)에 드러가나 그러나 우리는 먼저의 물에 드러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곳에 잇으면서 또한 그곳에 잇지안타.

[註] 斷片 一二, 九一參照. 이러한 『헤라클레이토스』의 思想은 흔히 『모든 것은 흐른다』(Panta rei)라는 命題로써 表示된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自身은 panta rei 라는 말은 하지 안었다. 그 以後의 哲學者——『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등에 依하여 그 萬有流轉의 思想은 特別한 面貌를 내게 되었다. (Vgl. Zeller; Philosophie der Griechen I: 2, S. 796—. 特히 七九七頁 註 2參照. 『아리스토텔레스』의 「形而上學」九八七 a에 「모든 感性的인 것은 永遠히 流轉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이라고 하였다. 何如間 이 萬有流轉의 思想 及 對立物의 統一 及 鬭爭의 思想이 現代의 物質的 發展의 思想과 一面의 共通된 要素를 가지고 잇고 싸라서 그를 『헤겔』的 辯證法의 思想의 先驅로서 指目되는 것이 決코 理由없는 일이 아니다. 『헤라클레이토스』를 現代의 빛을 通하여 다시 살펴보려는 意圖는 적이 그냥 그를 남의 말만 쪼차서 敬청대고 되푸리하는 사람에게 對하여 暗示的이 아니면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헤라클레이토스』의 하지도 안은 말— panta rei 를 아는 것보다 그가 卽接이 斷片에서 말한 (eimen te kei eimen) (Wir sind es und sind es nicht)을 알자.

五〇, 나의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는 말의 法則(로고스)를 드러서 萬有는 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知慧 잇음을 말하는 것이다.

[註] 片 三二, 三三參照.

五一, 그들은 如何히 해야 그것(一者)이 서로 反撥하면서 一致하는가를 理解하지 못한다. 卽 弓과 七絃琴에 잇어서의 서로 反撥하는 一致를 理解하지 못한다.

[註] 弓이나 七絃琴이나 다 가티 서로 任務가 反對되는 두 개의 나무가 連接되어 調和된 音調를 發하는 것임으로 한말이다.

五二, 時間은 將棋짝을 노며 作란하는 兒童이다. 兒童은 支配者이다.

[註] haeōn—은 時間 又は 永遠 等の 譯이있다. 斷片 一〇〇參照. basilēiē 를 支配者라고 하였다.

五三, 戰鬪(폴레모스)는 萬物의 父이고 萬物의 支配者이다. 그것은 한편에 神(테우스)을 다른 한편에 人間(안트로포스)을 만들고 또 한편에 奴隸(도우로스)를 다른 한편에 自由人(엘로이테로스)를 만든다.

[註] 斷片 八, 八〇參照. Zeller; Philosophie der Griechen I: 2, S. 823, 註 2參照. 이 「폴레모스」라는 것을 物質的으로 解하는 것이 穩當치 안흔가 한다. 卽 『헤라클레이토스』當時에 잇섯든 對波斯戰爭에 依하여 社會階級 間의 關係가 顛倒되는 것을 그는 너무도 明白히 看取하였다. 解放되는 捕虜를 보았다. 斷片 六二에서 볼

수잇는 그러한 相關의 事實이 그에게 가장 內面的 哲學的 思索을 가지게 하여 이러한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五四, 隱蔽된 調和는 公開된 調和보다 낫다.

[註] 隱蔽된 調和 (harmoniē aphanēs)는 卽 神을 말함이다. 보이지는 안으나 最善美의 調和를 가지고 잇는 것이 窮極的이라는 것이다.

五五, 사람들이 보고 듯고 배울 수 잇는 모든 것을 나는 질겨한다.

五六, 사람들은 볼 수 잇는 事物의 認識을 全 希臘人보다 知慧잇다고 하든 『호메로스』와 같이 最上의 것으로 생각하고 잇다. 卽 이 (虱)자비에 從事하는 어린 아이들은 『호메로스』에 囑采를 보내며 그를 愚弄하면서 이와 같이 말한다. 卽 『우리가 보고 붓자본 것은 모다 남겨노핫스나 그러나 우리가 보지도 안코 붓잡지도 안흔 것은 가지고 왔다』고.

[註] 斷片 四二參照. 이 아이들의 말은 그 아이들이 고기자비 할 쎄에 『호메로스』가 무엇을 자벗느냐고 무를 쎄에 한 對答이라 한다. (Nestle 의 註)

五七, 『헤시오도스』는 多數人이 先生이다. 그들은 『헤시오도스』는 무엇이든지 大概는 안다고 確信하고 잇으나 그러나 그는 晝夜의 別을 알지 못하얏다. 실상인즉 晝夜는 하나이다!

[註] 『헤시오도스』는 「에페수스」의 詩人. 『호메로스』보다는 좀 절뎠다. 斷片 四〇參照.

五八, 善과 惡은 同一한 것이다. 醫師는 그가 病者를 여러 가지로 切開하고 쏘 불로 지지고하여 고약하게 아프게 할 쎄에도 그는 決코 病者에게서 報酬를 바들 資格이 업슴에도 不拘하고 報酬를 請求한다. 왜 그러냐하면 그 두 가지(治療하는 것——善과 苦痛을 주는 것——惡)은 同一한 일을 하는 것이므로써다. (卽 醫師의 善行에 依하야만 모든 疾病은 治療될 것이다).

[註] 이 斷片 最後의 句는 『셀스』의 註 에 依하면 『히포류토스』의 쓸데 업는 敷衍이라고 하얏다.

五九, □布者의 螺旋機의 曲道와 直道는 同一한 하나이다.

六〇, 上道와 下道는 同一한 하나이다.

[註] 火는 萬物의 原質로서 이 原質에서 萬物이 生하고 다시 萬物은 原質인 火로

도라간다. 火에서 生하는 길을 下道 hodos katō 라고 하고 火로 도라가는 길을 (hodos anō) 라고 한다.

六一, 海水는 가장 純粹한 것이고 또 가장 嫌惡한 것이다. 卽 魚類에 對하여는 머글 수도 있고 生命을 nier 주는 것이나 사람에게 對하여는 머글 수도 업고 死를 주는 것이다.

[註] 이것으로 보드라도 그의 「反對의 一致」라는 思想이 얼마나 經驗的인가를 알 수가 있다.

六二, 安죽는 것은 죽고 죽는 것은 안죽는다. 이 두 가지는 서로 한편의 死에 生하고 다른 편의 生에 死한다.

[註] (athanatoi thnatoi, thnatoi athanatoi) (안죽는 것은 죽고 죽는 것은 안죽는다)는 『헤라클레이토스』思想의 가장 象徴的인 命題인 것 가티 생각된다. 이 句는 生成, 對立의 統一, 爭鬪 等の 思想을 渾然히 內包하고 있다. 斷片 三六參照.

六三, 그(『헤라클레이토스』)는 肉體, 우리가 그 속에서 出生한 地上的인 것, 可視的인 것의 復活에 對하여도 말하였다. 또 神이 이 復活을 攝理한다는 것을 안다. 그의 말에 가로대 『저기있는 그(神)의 앞에서 復活이 生하고 生者及 死者의 守衛人으로서 新生한다. 그는 또 世界의 審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火에 依하여 生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註] 이 斷片에 對하여 『펠스』는 다음과 가티 註 하였다. 『死의 運命안에 있는 者는 神秘宗의 新改宗者와 가티 復活하여 그들의 炬火에 神의 榮光을 祝하라고 불을 켜다. 그리하여 그들은 人間의 守衛人으로서 이제는 그들의 光明있는 存在로 新生하였다. 여기서 『헤라클레이토스』는 斷片 二四, 二五의 英雄에 連關하여 精神의 火를 생각하였다 何故냐하면 이 精神의 火外에 死의 뒤에 남은 것은 泥糞보다도 감시 업슴으로』.

그의 이 註 는 確 神秘的이나 果然 그와 가티 『헤라클레이토스』도 생각하였을는지 確 疑問이다.

그리고 이 斷片에서부터 斷片 六六까지는 서로 連絡되어있는 것이다.

六四, 『그러나 電光이 宇宙를 操縱하고 있다』고. 卽 그것이 宇宙를 支配한다. 그는 電光을 永遠한 火라고 解한다. 그는 또 이 火는 理性的이고 全世界支配의 原因이라고도 말한다.

[註] 斷片 三一 及其 註 參照. 이 斷片에 말한 電光 (keraunos)이나 三一의 註에서 말한 Piēster 이나 다 가튼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六五, 그는 그러나 그것을 不足과 過剩이라고 말하였다. 그에 쏘출 것 가트면 不足은 世界構成이고 過剩은 燃燒이다.

六六, 그는 말하기를 『火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審判되고 斷罪된다』고.

六七, 神은 晝夜, 冬夏, 戰爭과 平和, 飽滿과 饑餓이다. 그러나 神은 香料와 混合되면 그 香氣에 依하여 各人の 味覺에 紗러 이름 지어지는 酒와 같이 變化한다.

[註] 이 斷片은 各人에 依하여 그 譯이 다르다. 나는 『셀스』의 譯보다 『네스틀레』의 譯이 意味가 通한다고 생각하여 그것에 쏘쳤다. 더욱 『젤러』의 前掲書八三四頁 參照.

六七a, 거미줄 한가운데에 있는 거미는 파리가 제 줄의 어전한 오래기를 헝크리자 말자 그것을 알고 빨리 그것으로 마치 그 헝크러진 줄의 修繕을 원망하는 듯이 내뺏는다. 쪽 그와 같이 사람의 精神도 身體의 한곳이 傷하면 마치 精神과 一定한 關係에서 結合된 身體의 負傷에 對하여 不愉快히 생각하는 것 같이 곧 그리로 마음이 쏘린다.

六八, 『헤라클레이토스』는 身體의 病을 治療하는 材料는 精神의 病을 治療하는 贖罪의 材料라고 말하였다.

[註] 六七a, 六八의 두 斷片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가티 『쏘-크라테스』以前의 哲學者에게 있어서의 醫學的 用語法이 各급 使用되고 있다. 이것은 그 當時의 哲學者가 흔히 「醫學者」를 兼하고 잇섯든 것을 말하는 것이겠다. 『헤라클레이토스』도 醫學者이 얏는지는 不明이나 그도 醫療라고 하는 것에 非常히 關心을 가지고 잇섯든 것은 窺知할 수가 있는 것이다.

六九, 犧牲에는 두 가지 種類가 있다. 하나는 內的으로 完全히 淨化된 사람에게서 가져와 지는 것으로서 그러한 것은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바와 같이 드물게 어전 쎄는 오직 한사람에게서만 又は 손고바 헤일만한 몇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物質的인 犧牲이다.

[註] 이 斷片은 어데서 어데까지가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인지 分間하지 못하겠다. 아마 斷片 四九의 敷衍이 아닐가 한다.

七〇, 사람의 意見은 兒童의 遊戲와 가트다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하였다.

七一,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 줄은 忘却한 사람을 사람들은 또한 想起하지 안흐면 아니 될 것이다.

七二, 그들은 가장 만히 늘 交涉하지 안흐면 아니 될 法則(로고스) 卽 萬物의 支配者와 사이가 머러진다. 그리하여 그들이 日常 닥드리는 事物이 그들에게는 新奇한 것 같이 보인다.

[註] 斷片 二와 其 註 參照. 『네스틀레』는 이 「로고스」를 形而上學的으로 解하여 Phrouein(精神的認識)과 Phrouesis(思惟作用)과 同義語라고 解하나 『뢰부』는 그리하면 만흔 困難이 生한다하여 經驗的으로 解하랴한다. 實로 『헤라클레이토스』에 있어서의 (logos koinos) (普遍的인 「로고스」)는 問題가 있는 것이다. 又 斷片 一一三 參照.

七三, 사람들은 잠자고 잇는 사람과 같이 行動하고 談話하여서는 아니 된다. 웨 그러냐하면 우리는 잠자고 잇을 ㅅ애에도 行動하고 談話한다고 믿고 잇음으로.

七四, ㅅ사람들은 創造者의 아들같이 해(tun)서는 아니 된다. 卽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니어바든 것(繼受)같이』

七五, 『헤라클레이토스』는 잠자고 잇는 사람도 世界現象의 □□者이고 □□者라고 말하얏다.

七六, □는 □으 □이 生하고 □는 □□□에 生한다. □는 □□□에 生하고 □는 □의 □에 生한다.

[註] 斷片 三一, 三六參照.

七七, 『精神에 잇어서는 樂과 死는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樂은 精神의 生에 成立한다. 어디서인가 그는 『우리는 精神의 死에 生하고 精神은 우리의 死에 生한다』고 말하얏다.

七八, 사람의 官能은 아무러한 認識을 가지지 못하얏으나 오직 神은 가지고 잇다.

七九, 사람은 아이가 어른에게 幼稚하다고 일러지듯이 神에게 그러케 일러진

다.

八〇, □□는 普遍的인 것과 그 爭□는 □□□□것을 또 모든 것은 爭□와 必然□에 □□生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안하면 아니 된다.

[註] 斷片 八, 五三參照.

八一, 修辭의 教授는 그것의 원갓 教義가 이 點을 目標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헤라클레이토스』에 依하면 그것은 屠戮의 指揮者이다.

[註] 『네스틀레』는 『修辭學이라고 하는 것은 權謀術數의 教唆者라』고 이 斷片을 意譯하였다. Nestle; Die Vorsokratiker H. 118 斷片 二七. 『네스틀레』翻譯의 『헤라클레이토스』斷片集은 『펠스』의 그것과 그 意味가 不同하다. 그리고 더욱 原文은 실리지 안아서 이 斷片 八一과 符合하는지 안는지는 未詳하나 어쨌든 이 八一의 뜻은 『네스틀레』의 譯과 가튼 意味의 것이다. 永遠한 火의 「로고스」를 認識하지 못하고 오직 皮相的으로 辯論의 技術만을 爲主하는 修辭學을 그가 輕蔑히 본 것은 當然한 일일 것이다.

八二, 가장 아름다운 원숭이라 할지라도 人間에 比하면 醜惡하다.

八三, 가장 知慧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神에게 對하면 마치 知慧에 있어서나 아름다운 품에 있어서나 其外 모든 것에 있어서 원숭이 같이 보힐 것이다.

[註] 이 斷片에 神이라고 하였다고 그것이 무엇 形而上學的 神性を 意味하지 안은 것을 나는 注意하고 시프다. 그의 英雄的 超人主義가 원갓 點에 잇서서 Menge 또는 Poehel 로서의 人間보다 나흔 形像을 理想하여 그 形像을 永遠한 火의 「로고스」에서 보았다는 것을 이저서는 아니 될 것이다. 火가 上道와 下道 (斷片六〇) 를 通하여 一切萬物에 作用할제 그 「로고스」는 「로고스」의 原本的인 意義 legein——「말한다」의 形式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여 이 legein 이 어떤 理想的 超越의 存在로써 생각되얏을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의 神은 이 가티 하여 生한 것이 아닌 가한다. 더욱 『막스·분트』의 前揭論文參照.

八四, 그것(人體안에 잇는 에틸과 가튼 火)은 變轉하면서 休息한다. 그것은 가튼 일에 使役되기에 困疲하면서 또한 그 일에 盡力하고 잇는 것이다.

八五, 欲情과 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 그러냐하면 사람은 저의 모든 願望을 精神을 과라서라도 사는 까닭이다.

[註] 우리는 이 斷片에서 thymos(欲情)에 對한 psychē (精神)의 優位를 看取할 수 있다.

八六, 神的 事物의 認知는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안음으로 大概는 우리의 理解에서 멀리 疎러져 있다.

[註] 斷片 八三註 參照.

八七, 淺薄한 人間은 늘 어서한 말을 듯든지 놀래서 비켜스다.

八八,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음의 것은 늘 同一한 것이다. 卽 生과 死 함께 있어 잇는 것과 잠드러 잇는 것, 절름과 늘금. 後者는 前者로 變하고 前者는 다시 後者로 變한다.

[註] 이 斷片은 『네스틀레』編의 斷片 七一에 依하여 譯하였다. 『쉴스』의 譯도 잘못된 것은 아니나 前者의 것이 알기 쉬운 卞답이다.

八九, 잠을 깨어잇는 사람들은 한 개의 共通된 世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잠잘 峯는 그들은 各自其 그 共通된 世界로부터 疎나 固有한 世界로 드러간다.

九〇, 火에 對하여 萬物이 萬物에 對하여 火가 交互的으로 交換된다. 마치 商品에 對하여 金貨가 金貨에 對하여 商品이 交換되듯이.

[註] 『헤라클레이토스』時代가 貨幣使用의 歷史的 發達 上에 잇서서 如何한 位置에 處하여잇는가 對하여 생각하여 보건대 그 時代는 「류지야」人이 金屬貨幣를 使用하기 始作한 뒤부터 五六世紀나 지난 뒤이얏든 것을 알 수가 있다. 「류지야」人이 世界最古의 商業國이 얏고 世界文化史上에 남긴 그들의 功績의 큰 것은 金屬貨幣의 使用이였다. 그러므로 『헤라클레이토스』時代에는 穰 만히 發達된 貨幣經濟의 時代이였을 것이다. (岩波書店 · 世界思潮 第一卷 『キリシヤ啓蒙運動』——野上豊一郎 參照)

九一, 『헤라클레이토스』에 依하면 『사람은 두 번 가튼 개울에 드러갈 수가 업다』 卽 同一한 消滅하는 物體에는 그 本質 上 두 번 接觸할 수가 업고 도리어 그 變化의 激烈迅速함에 依하여 『分散하고 다시 集合하고, 接近하고 遠隔하는 것이다』

[註] 斷片 一二. 四九a 及 其 註 參照.

九二, 興奮된 것임으로 嚴肅하고 假飾없고 粗朴한 말을 하는 『시블라』는 그 소리가 千年에 미친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神이 올라 잇음으로.

[註] 『시블라』는 女 豫言者의 이름. 『헤라클레이토스』의 宗教觀은 그의 斷片에서 綜合하여 보건대 (斷片 五, 一四, 一五 等)通俗的인 偶像 禮拜에 對하여 嫌惡한 것 가트다. 그의 當時에는 別서 純粹하고 精神的인 神에 對한 思想이 廣汎하게 支配하고 잇섯다. 그리하여 前 六世紀에는 全 希臘에 그러한 宗教運動이 出現하였고 『헤라클레이토스』의 神의 觀念도 그것에 影響바든 것 가트다. 『시블라』의 그러한 소리는 當時의 支配的인 神의 觀念에서 보아 純粹하고 深遠한 것이었슴으로 永遠하리라고 생각하얏을 것이다. 그는 在來의 宗教的 儀式을 排斥하얏다.

M. Wundt; Die Philosophie des Heraklit von Ephesus usw., Archiv f. Geschichte der Philosophie Bd. 20 參照.

九三, 「델포이」에서 宣託을 掌握하고 잇는 主神은 말도 하지 안코 감추지도 안코 暗示를 하는 것이다.

[註] 「델포이」는 「아메네」에 잇는 『아폴론』神殿. 『아폴론』은 그 神殿의 主神으로서 豫言詩歌의 神.

九四, 太陽은 제 軌道를 버서나지 안흐리라. 萬一 그러타할 것 가트면 『썬케』(正義의 女神)의 捕手인 『에리뉴에스』가 그것을 發見할 것이다.

[註] 斷片 三〇參照. 『에리뉴에스』는 復讐의 女神으로서 惡人에 對한 呪咀와 刑罰의 表徵. 『헤라클레이토스』時代에는 別서 太陽崇拜라고 하는 그러한 原始的 拜物宗教는 그 跡을 느느라고 하얏다. 太陽 그것도 萬物을 支配하는 理法에서 自由로울 수가 업다는 것을 意味한 것이다.

九五, 自己의 無分別함을 隱匿하는 것은 조타. 그러나 放逸과 飲酒에 잇어서 만은 그것은 어렵다.

九六, 屍體를 塵糞보다 먼저 投棄하지 안흐면 아니 된다.

九七, 개는 아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지즈며 덤벼든다.

[註] 斷片 八三 註 參照. 『막스·분트』가 말한 바와 가티 『헤라클레이토스』는 當時 希臘社會의 縮圖이였다. 「이오니아」人 사이에 잇는 不安과 急迫은 모든 平民의 民主主義的 思想에서 超人的 態度에로 歸鄉하는 것이였다. 그리하여 斷片 四九 가튼 英雄을 思慕하는 思想이 ilder났고 그리하여 斷片 四〇, 四二에 볼 수 잇는 것 가튼 希臘의 國民의 英雄까지도 輕蔑하얏다.

九八, 精神은 「하이덴」에서는 臭氣를 發한다.

[註] 「하이덴」(haidēn)은 黃泉冥府等不見의 國이다. 斷片 一五 及 其 註 參照. 『英雄의 精神의 코(鼻)는 蒸氣의 神과 가티 地上的 蒸氣을 窒礙한다』고 『펠스』는 註하였다.

九九, 太陽이 업슬지라도 星夜는 잇으리라.

一〇〇, 一年 經過의 守衛者로서의 太陽은 現象의 變化를 가져오고 또 萬物을 運載하는 時間을 가져온다.

[註] 이 時間(hōra)은 一年의 時間經過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氣候, 青春 等の 뜻도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써 미루어 보드라도 時間觀念이 經驗的으로 어더진 것을 밝히는 것이 되겠다. 『헤라클레이토스』에 잇서서의 時間觀念도 그러케 經驗的이엇든 것이다. 또 Hōrai 라고 하면은 時間의 女神들이다.

一〇一, 나는 내 自身을 探求하였다.

[註] 『헤라클레이토스』가 最初로 「愛知者」라는 말을 創作하였다는 것(斷片 三五 註 參照)을 생각하고 이 斷片을 볼 때 그는 참 意味의 哲學的 思索을 가졌든 것 가티 보인다. 「汝自身을 알라」(gnōthi seauton)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무것도 그의 造作한 것이 아니고 벌써 그보다 六七十年 前에 『헤라클레이토스』가 切實히 體得한 말이였다.

一〇一a, 眼은 耳보다 精確한 證人이다.

[註] 斷片 一〇七 參照.

一〇二, 神에게 잇어서는 萬物은 美이고 善이고 正이다. 그러나 人間은 한편은 正이라고 하고 다른 편은 不正이라고 한다.

一〇三, 圓周에 잇어서는 始와 終이 同一하다.

一〇四, 그들이 感性과 悟性은 어련것이냐. 그들은 周遊詩人을 믿고 또 多數 民衆을 先生으로 섬겼다. 이것은 그들이 大多數 人이 不正하고 오직 몇 사람만이 善하다는 것을 아지 못하는 까닭이다.

[註] 斷片 一九, 二九, 一〇二參照. 이것은 『네스틀레』는 斷片 三九에 잇는 『세아스』에 對한 諷刺라고 註 하였다.

Nestle; Vorsokratiker S. 255

一〇五, 『호메로스』는 占星師이얏다』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일리아드」第十八篇<sup>一</sup>二五一 「또 어쨌 날 밤 그들은 出生하얏다」에서 推論하얏고 또 同第六篇<sup>二</sup>四七八 「可死的인 사람으로서는 運命을 避할 수가 업다고 나는 생각한다」에서 推論하얏다.

[註] 『헤라클레이토스』가 어쨌한 意味에서 『호메로스』에 對하야 占星師라는 말을 하얏는지 도무지 疑心적다고 『펠스』는 註 하얏다.

(一) 「아킬리스」의 □이라고 題한 篇.

(二) 「그로스코」와 「쩍오미드」와의 邂逅, 「헥톨」과 「안트로마케」와의 離別이라고 題한 篇.

『헥톨』이 妻를 愛撫하면서 한 말——『나의 戀人이여 슬퍼하지 마라. 아무도 運命의 마음에 拒逆하야 「하데스」에로 나를 보낼 수가 업스리라. 그러나 어쨌한 사람이든지 貴하든지 賤하든지 出生한 새부터 곳 運命의 支配를 받지 안는 者는 업는 것이다. 너는 가서 너의 일——베 짜고, 실 감는 ——을 하는 것이 조타……』고 하고 『헥톨』은 투구를 지머쓰고 戰場으로 가버렸다.

一〇六, 一日은 他 一日과 가트다.

一〇七, 人間이 未開人的 精神을 가지고 잇는 限 그들에게는 眼과 耳는 聾聵證人이다.

[註] barbarous psychas 는 未開人(希臘人이아니면모다그리케볼렀다. 波斯人 埃及人마케도니아人等의諸外國人)가티感性的陳述을 正當히理解하지못하는 精神이다.

一〇八, 내가 그 말을 드른 모든 사람들 가운데의 如何한 사람도 知慧는 모든 것으로부터 隔離되야잇는 그러한 것이라는 認識에 到達한 사람은 하나도 업다.

一〇九, 제 無分別을 隱匿하는 것은 그것을 公開하는 것보다는 낫다.

[註] 九五參照.

一一〇, 人間에 잇어서는 그의 모든 欲望이 充足된다면 조흔 일은 아닐 것이다.

[註] 斷片 一〇八에서 그가 「로고스」(知慧를 아는 것)를 超絶的 存在라고 생각하고 또 이 斷片에서 人間的 欲望의 充足이 조흔 것이 업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느 程度까지 理想主義者이엇다고도 생각킨다.

一一一, 疾病은 健康을 , 惡은 善을 , 饑餓는 飽滿을 , 勞苦는 休息을 愉快케 만든다.

一一二, 精神的 認識作用은 偉大한 能力(aretē mogistē)이다. 그리하여 知慧는 眞理를 言述하고 自然에 싸라서 眞理에 歸屬하면서 行動하는 點에 成立한다.

[註] 斷片 二, 七二 及其 註 參照. 『셀스』는 phronein 을 「思惟」라고 譯하였다.

一一三, 思惟(phroneein)는 萬物에 共通이다.

一一四, 사람이 悟性(noos)으로써 말하라고 하면은 마치 城市가 法律(노모스)로 武裝한 것 같이 그보다 더 強하게 이 가튼 萬人에 共通한 것으로써 武裝하지 안하면 아니된다. 그러나 모든 人間의 法律(노모스)은 神의 法則에 依하여 養育된다. 왜 그러냐하면 그러한 神의 理法은 하고자 하기만 하면 命을 나리고 모든 것을 滿足시키고 또 모든 것을 支配한다.

[註] 斷片 二 及其 註 , 一一二, 一一三參照

一一五, 精神은 제 스스로 커지는 世界理性(로고스)이다.

一一六, 모든 人間에는 제 自身을 認識하고 思惟하는 힘이 賦與되어야있다.

一一七, 사람이 술이 醉하여야잇을 쎄는 그는 幼少한 兒童에게도 引導되리라. 그는 비틀거리며 어데로 그가 가는지도 아지 못한다. 何故냐하면 그의 精神이 濕하여 잇슴으로.

一一八, 乾燥한 榮光, 그것은 가장 智慧롭고 가장 尊貴한 精神이다.

[註] 斷片 一二及其註 , 三六參照. Zeller; Philo[so]phie der Griechen, I : 2, S. 815, 882-3, 846-850 參照.

一一九, 人間의 性質은 神의 선물이다.

[註] ethos 는 住所, 性格, 傳來, 心術 等の 여러 가지 뜻이 잇스나 『셀스』는 性質, 氣質 等の 意味로 譯하였다.

daimōn 은 「神의 보내준 것」이라는 뜻을 가졌다.

一二〇, 熊星이 朝와 夕의 限界를 成하고 그 熊星의 反對方에 빛나는 한울에 『체우스』의 山이 있다.

[註] 「限界」又是 「山」이라고 譯한 ouros 에 對하여 『셀스』와 『네스틀레』와의 意見이 다르다. 『네스틀레』는 『체우스』의 限界라고 하였다. 더욱이 斷片에 對하여는 『네스틀레』의 仔細한 註가 있다. (Nestle; Vorsokratiker S. 255-6)

一二一, 「에페수스」市民은 그들이 모다 成年이면 서로 목을 매주기고 그들의 城市를 未成年者에게 引繼하는 것이 當然하다. 卽 그들은 그들의 가장 善良한 사람인 『헬모도로스』를 이러한 말을 하면서 내쫓았던 것이다——우리들 사이에는 누구든지 가장 善良하여야서는 아니 되고 萬一 그러한 사람이 벌써 있다고 하면은 어데로든지 쫓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내쫓아야 한다.

[註] 『헬모도로스』는 「에페수스」市民으로 十二表法律의 制定을 助成케 하였고 그 罪問에 銅像을 해세워서 崇拜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城市로부터 追放되었다. 斷片 四九와 가튼 생각을 가진 『헤라클레이토스』에 잇서서는 當然한 말이다.

一二二, 『헤라클레이토스』는 amphisbatein(爭論)과 agchibatein(直接—nahe tife)라는 것에 對하여 agchibasiēn(接近)이라는 것을 使用하였다.

一二三, 自然은 隱匿하기를 즐겨한다.

[註] 이것의 自然이 調和된 秩序로써 存在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겠다.

一二四, 最美의 天穹窿도 아무러케나 디리싸 노흔 塵埃더미와 가트다.

[註] 勿論 그 가늘 辱하는 大多數 人(Pöbel)에게 잇서서 그러하다는 말이다. 斷片 一〇二, 一〇八 參照.

一二五, 麥湯도 사람이 그것을 攪亂하지 안으면 朽爛한다.

一二五a, 「에페수스」市民들아 너이의 放蕩이 暴露되기 爲하여 決코 너이의 財物을 壼새지 안는 것이 조타.

一二六, 寒한 것은 暖하고 暖한 것은 寒하고 濕한 것은 乾하고 乾한 것은 濕한다. (了)

[註] 斷片 三六, 七六, 八八 參照